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이정식 교수와의 대담 : 북한의 장래와 남북한 관계

이정식 /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교수

김용호 / 영국 옥스포드대학 방문교수,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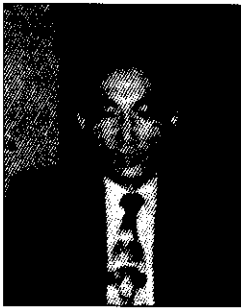
이정식

1. 경제 문제

김용호: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진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저는 북한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경제의 체제 문제,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군사 비용의 과중한 부담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주체 경제, 즉 자급 자족의 원칙 하에 스탈린식 경제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원칙 하에서 일제시대에 개발했던 광업과 중공업 시설을 중심으로, 공업을 발전시켰고 또한 스탈린식으로 농장 등을 집단화했는데, 이 제도가 60년대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제도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 북한 수뇌부는 70년대 초반에 개혁을 시도했었는데, 그 당시의 국제 환경의 변화가 이를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이 벗어나기 힘든 악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북한은 1971~72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간의 데탕트 분위기를 이용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장 시설을 수입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그 전까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과 원조에 의존해오던 북한으로서는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김용호

OPEC 나라들이 석유 수출을 대폭 축소하고 기름 값을 올리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침체됐고, 따라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광물 자원을 팔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북한은 수입했던 시설에 대한 대가, 즉 약 50억 달러의 부채를 지불할 능력을 상실했고, 결국 지불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지요. 왜 제가 70년대의 일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부도를 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들여오지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도를 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폭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은 과거의 그 체도를 그대로 유지해나가야 했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구소련에게 의지해야 했지요.

그래서 1989년에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무역에 있어서 종래의 우호가가격제를 폐지하고 경화 결제를 요구한 것은, 북한에게는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구소련에 의존하였고, 또한 구소련으로부터 사치품이 아니라 공장 가동에 필요한 핵심 원료와 부품들을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소련과 동구가 붕괴되자 북한의 대외 무역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원유, 공업 원료 및 부품의 수입이 불가능해져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터에 또 냉해,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해 곡물 생산이 부족하여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집단농장식 사회주의 농업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재해가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켜버렸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부담이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거의 절반에 불과하고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의 1/10이 될까 말까한데,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에 버금가는 군대와 군사력을 유지하려니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북한 붕괴론은 ① 북한 지도자들의 경제난 해결 능력 부재나 북한 경제의 회생 불가능으로 인한 식량난 계속, ② 굶주린 북한 주민들의 정부 전복을 위한 봉기, ③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의 주민 소요 통제 능력 상실 등의 가정과 논리 하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의 경제난 심각성 파악과 문제 해결 노력 등으로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호: 북한의 경제 위기가 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정식: 북한 붕괴론은 경제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자들이 경제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북한 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나쁘기 때문에 식량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앓을 것이 없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를 넘어뜨리기 위해 봉기할 것입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주민 소요를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둔 북한 붕괴론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북한 지도자들이 경제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심각한 재난이 겹치는 바람에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이 봉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난이 체제 붕괴를 가져온다는 논리는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닐까요?

중국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대약진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적 무리때문에 1,500만 내지 3,000만 명이 굶어죽었으나 체제가 붕괴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소련에서는 30년대초 우크라이나 지방에 기근으로 인해 700만~800만 명이 죽었으나 체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차대전 동안 일본, 러시아,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었으나, 주민 봉기나 쿠데타로 인해 체제가 붕괴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적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경찰이나 군대를 통한 정치적 통제가 막강하였으며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남한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교양 사업’이 계속 되어왔고, 또한 당과 군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

“더욱이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정일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특히 스탈린 사후에 구소련이 그리고 모택동 사후에 중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없더라도 김정일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북한체제와 자신들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어지고 있으며, 권력층의 단결력이 강하며 김정일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김정일이 현재 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한국전쟁 동안 거의 궤멸된 상태에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건한 것으로, 무엇보다 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중시하여 오랫동안 철저하게 반당 분자, 불평 불만자, 분파주의자들을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전쟁 중에 점령군에 협력했던 자들을 완전히 색출하여 숙청하였는데, 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친지들도 모두 조사를 받고 숙청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나 당의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도자나 당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당원과 일반 주민들이 서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남한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에 대해 끊임없는 사상 교육을 매우 효과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 사회가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최근의 식량난이 북한의 통제력을 약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탈북자의 수는 매우 적으며, 또한 황장엽씨의 망명이 우리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북한체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북한 권력층의 핵심은 항일 운동이나 한국전쟁에서 희생되거나 공로를 세운 혁명 열사들의 자제들이 다니는 만경대학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질성과 응징력이 높으며, 자신들의 생존이 김정일체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체제를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엘리트들은 김정일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특히 스탈린 사후에 구소련이 그리고 모택동 사후에 중국이 정치적 혼란을 겪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없더라도 김정일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북한체제와 자신들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보면 북한에서 수천 명이 굶어죽거나, 소요에 가담하는 수만 명이 처형되더라도 당과 엘리트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집단농장 방식의 사회주의농업체제에 있으나 모택동처럼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는 없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의 유소기와 같은 지도자의 도전이 두려워 문화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 지도자들의 변동이 정책 갈등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이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호: 선생님께서 북한의 현재 경제난을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의 경제난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당시 중국에서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을 추진하자, 유소기는 이에 반대하는 등 지도자들간에 의견 차이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북한에서도 식량난을 해결하는 방안 등을 두고 지도자들간에 의견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 발생한 강성산 총리의 경질, 최광 인민무력부장과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의 사망, 황장엽의 망명 등이 내부의 심각한 정책 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정식: 중국은 모택동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식량난을 겪었으나, 북한 당국은 식량난을 홍수 등 자연 재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한국의 ‘반동 분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여러 나라들의 대북 식량 원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은 집단농장 방식의 사회주의농업체제에 있으나 모택동처럼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는 없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중국의 유소기와 같은 지도자의 도전이 두려워 문화혁명을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북한 지도자들의 변동이 정책 갈등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북한이 앞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라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식: 김일성을 비롯하여 김정일 등 북한의 관리들이 여러 차례 중국의 경제특구를 방문하였고, 특히 김일성이 1984년경에 중국의 심천을 돌아본 후 북한도 합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1990년에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이 외자를 도입

“북한은 현재 중국식의 시장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국의 심천에서처럼 시장 경제를 실험해보는 경우 후유증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중국의 경제 개방과 개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점을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북한이 중국식의 시장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려면 무엇보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남한의 자본이고, 또한 다른 나라의 자본도 남북 관계가 긴장되어 있는 경우 북한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재 중국식의 시장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나라가 작기 때문에 중국의 심천에서처럼 시장 경제를 실험해보는 경우 후유증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파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중국의 경제 개방과 개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점을 배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북한이 중국식의 시장사회주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처럼 집단농장의 해체 등과 같은 농업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집단농장을 해체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김용호: 앞으로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정식: 글썄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장기적으로 볼 때 대미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한국과 외국의 자본 도입 등은 필수적인 항목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분조계약제를 도입하면서 생산 단위를 종래의 20~30 가구에서 10 가구 내외로 줄이고, 국가에 바치는 몫을 줄여 농민 시장에 나가 팔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외에도 앞으로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비료의 생산과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금강산, 백두산 등에 관광 산업을 개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대우가 남포에 투자를 한 것과 같은 방식의 합작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

“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장기적으로 볼 때 대미 관계 개선,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한국과 외국의 자본 도입 등은 필수적인 항목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력 향상을 위한 비료의 생산·수입 증가, 금강산, 백두산 등 관광지 개발을 통한 외화 획득, 합작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사비 부담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스꽝스러운 말로 들릴 것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과거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국의 원로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을 초빙해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들이 진지하게 대화에 응해줄 것으로 믿고 있고, 북한측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군사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향후 3 년간에 일방적으로 병력을 20~25% 감축할 터이니, 한국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력 감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경우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병력 감축을 시작했다고 해서 한국군이 북한을 침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가 위협을 당할 리가 없는 반면,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간의 긴장은 많이 완화될 것이고 따라서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에서도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허황한 말로 들리겠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치·군사 문제

김용호: 북한체제는 최고 통치자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김정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은 김정일의 정치적 성향을 비롯하여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정식: 우리들이 김정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 최근 망명한 황장엽씨가 그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 김정일을 가장 가까이 관찰했

“김정일의 정치적 성향이나 리더십은 최은화·신상옥씨 납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융통성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군부의 개혁에 대한 태도는 당·정·군의 간부들이 모두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군부 가운데서 누가 개혁에 대해 지지·반대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던 분은 아마도 1978년에 납북되었다가 탈출한 최은희씨와 신상옥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납북 사건과 증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김정일은 당 이념과 선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당시 한계에 도달한 북한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두 사람을 납치한 것을 보면 비록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그가 경직된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가능한 융통성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북된 두 사람이 협력을 하자 김정일은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지원한 것을 보면 마음이 비좁은 리더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호: 김정일과 함께 북한의 장래를 가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북한의 군부입니다. 과거 구소련의 경우 “빵이나, 총이나” 하는 논쟁에서 군부의 젊은 세대들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북한의 군부는 개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정식: 정보 제한으로 인해 북한의 군부가 개혁을 지지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구소련에서는 군부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글들을 분석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 당·정·군의 간부들이 모두 동일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군부 가운데서 누가 개혁에 대해 지지·반대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19세기 말의 한국·중국·일본의 역사를 비교할 때 일본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반면, 한국과 중국이 그렇지 못했던 것은 당시 일본의 통치자들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군인들이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서방 국가들이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밀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이 개혁해야겠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따라서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했지요.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을 통치하고 있던 文民紳

“북한이 경제난 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정치적 불안정이나 쿠데타와 같은 정변을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북한에서의 쿠데타는 김정일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를 제거한 후 북한의 어느 장군도 북한을 통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士들은 그러한 감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북한 군인들이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용호: 최근 북한내 강온파의 대립이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이정식: 북한이 경제난 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황장엽씨가 “군부는 전쟁 얘기만 하고 있고, 사람들이 굶어죽어가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쿠데타와 같은 정변을 가져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김정일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김정일을 제거한 후 북한의 어느 장군도 북한을 통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김용호: 최근 북한의 주체사상을 창시한 황장엽씨가 망명함으로써 주체사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체사상의 본질과 장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정식: 본인이 1981년에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1 시간에 걸쳐 북한의 주체사상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주체사상이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어 북한 학자에게 “주체사상과 마르크시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체사상은 Post-Marxism”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마르크시즘과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사상을 결합시킨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이 현재 북한 주민들과 사회를 결속시켜주는 역할

“북한의 주체사상은 주민과 사회 결속의 도구에 불과하고,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강한 대외 협상력은 외교 관리들의 오랫동안 같은 부서 근무로 인한 높은 전문성과 그동안 중국·구소련 분쟁 속에서 쌓은 강대국 상대의 오랜 외교 경험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체사상은 도구에 불과하고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뭉쳐있다고 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적인 존재이고 거의 모두가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김정일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아 북한을 이끌어나가는 것입니다.

3. 대외 관계

김용호: 북한은 정치·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대외 협상력을 과시하였는데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정식: 북한의 대외 협상력이 강한 것은 외교에 종사하는 관리들이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고, 또한 그동안 중국·구소련 분쟁 속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어떻게 외교를 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랜 경험을 쌓은 결과 외교술이 발달한 것으로 봅니다.

김용호: 북한이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보여주었고, 또한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를 지키지 않는 등 국제 관례와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많아 서방 국가들이 아직도 북한을 불신하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대외 행동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이정식: 국가로서 북한의 대외 행동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국도 개방되기 전에 국제법과 국제 기구 등을 무시하였으나 이제는 국제적인

“북한의 대외 행동 변화는, 과거 개방되기 전 국제 제법과 국제 기구 등을 무시한 중국이 이제는 국제 관례를 따르고 있듯이, 북한도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이 서구의 거래 방식과 외교 관례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북한도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합영 사업을 하던 조총련 출신의 사업가가 국제적인 상거래 방식을 무시하는 북한 당국의 행동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총련 출신의 재벌인 사꾸라그룹이 북한에 남자용 기성복을 만드는 공장인 모란봉합영공장을 건설하여 초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합영 사업으로 전망이 좋았으나, 결국 북한 당국자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고 생산품을 다른 외국 업자에게 팔아 넘기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았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북한 당국자와 토론하는 장면이 1 시간에 걸쳐 제작년에 일본 東京 TV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거래 방식을 잘 알지 못하는 북한체제 자체의 문제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또한 계약을 중시하지 않는 동양의 문화적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서구의 거래 방식과 외교 관례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서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북한인들의 서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85년에 제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역사학회에 북한 학자들을 최초로 초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 2명과 통역원 1명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갱 영화와 서부 영화 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자신들의 신변 안전을 두려워할 정도로 미국 사회가 폭력과 범죄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미국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미국에 묵으면서 백악관도 구경하고 개인 집에서 자유롭게 파티에도 참석한 후 이들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인들의 서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서구의 자본주의 거래 방식과 국제적인 외교 관례를 배우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북중 관계는, 북한은 중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도 북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더라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계속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등소평의 사망으로 인해 김정일과 중국 지도자들간의 유대는 과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용호: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변 국가의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북한의 경제난 등을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이정식: 중국은 대북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중국이 북한의 최대 곡물 지원국이었습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북한 카드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최근 황장엽 사건을 보면 중국이 한국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 걸쳐 한중간의 교류 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 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이정식: 북한은 중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중국도 북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중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더라도 북중간의 동맹 관계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도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계속해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등소평의 사망으로 인해 중국에서 북한 지도자들과 공산주의운동을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과 중국 지도자들간의 유대는 과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욱이 북한의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원조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대북 원조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필요한

“미국의 對한중 관계 시
각은, 미국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의 설득에 중
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
기 때문에, 한국이 한반
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
국에 중재 역할을 요청
하는 경우 미국이 반대
하거나 반감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이 미국이나 일본을 무
시하고 중국과 무조건
가까히 지내는 것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동맹국이지만 점차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동맹국이 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특히 남북한간의 갈등을 중국이 어떻게 중재하는냐에 따라 한반
도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정식: 미국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을 설득하는 데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중
재 역할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이 반대하거나 반감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앞으로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동맹을 통
해 더욱 가까워진 상태에서 앞으로 한국이 미일 동맹 관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단기·중기·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앞으로 20년 후에 중국이 강대해지고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을 무시하고 중국과 무조건 가까히 지내는 것에는 문제가 많습
니다. 이처럼 향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가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미중간의 대립이나 일중간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미중·일중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은 설 땅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4.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

김용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

“그동안 수많은 국제 회의에서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남북한이 자기 방식대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함으로,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향을 가진 통일된 한국의 등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매우 냉소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정식: 그동안 수많은 국제 회의에서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들은 남한이 과연 흡수 통일외에 남북한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 해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자기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고, 북한도 자기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용호: 최근 북한의 경제난과 위기설이 고조되자 한국 사회에서는 대북 정책을 비롯하여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각의 차이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서 “우리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북한 사회를 지상 낙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 정부를 교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북한 정권이 오래가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정식: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 각자의 주관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자, 동시에 경쟁 상대라는 점입니다.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같은 동족이므로 민주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같은 동족이므로 민주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해 북한과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 공존이 필요하다면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북한을 도와주지 않고는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공산 정권을 안정시키고 한반도에 평화가 수립되어야 남북한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용호: 당위론적인 입장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못지 않게 대북 유화 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북한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독일의 경우 구서독이 구동독을 경제적으로 지원한 결과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이 취약하고 위험한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정식: 한국과 독일을 비교하는 연구가 많은데, 우리들이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을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북 분단은 독일의 분단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 미국·구소련의 합의로 분단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미국·구소련의 분할 점령외에 민족내 공산 진영과 반공 진영간의 증오와 대립 관계가 심각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 후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공산 진영과 반공 진영간의 대립은 폭력화하였고, 1947년 영남 폭동 사건 후에는 양 진영이 확연히 다른 길을 가다가 결국 1948년에 북에서는 우익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결하여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남에서는 반공 세력이 집결하여 이승만 정권을 수립한 후 반공을 국시로 통치해왔습니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겪고난 후 남북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엄청난 전사자를 낸 미국과 중국이 이미 화해를 했으나 남북한은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

“구 동서독이 서로를 보는 눈과 남북한이 서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니다. 왜 그럴까요? 남북한은 한국전쟁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총알과 폭탄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보다 더욱 쓰라린 경험을 하였는데, 그것은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에 의해 희생되었고 또한 남한이 북진한 후에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동족의 손에 희생된 결과,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게 됨으로써 서로 깊은 원한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구 동서독이 서로를 보는 눈과 남북한이 서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제가 몇년 전에 판문점을 방문하여 북한 군인들의 눈을 보니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섬찍한 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학자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비전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어떤 북한을 원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북한을 원하는지, 아주 빈곤한 북한을 원하는지, 평화로운 북한이면 족한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김용호: 앞으로 한국이 외국의 도움없이 주체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정식: 우선 지금까지 한국이 주체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러한 주체적인 통일 노력이 가능한 환경이었던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1991년 노태우 정권이 만 들어낸 기본합의서를 과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합의서가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약속한 대로 실천하였다면, 지금쯤 통일이 눈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북

“만약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약속한 대로 실천하였다면, 지금쯤 통일일이 눈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불신으로 기본합의서가 실천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양쪽이 먼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을 중단하고 상호간의 증오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간의 불신으로 인해 기본합의서가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한이 먼저 상대방에 대한 공포감을 재생산하는 일을 중단하고 상호간의 증오감을 해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통일에 대해 너무 많은 제안과 발언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통일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통일이 되는 경우에도 휴유증이 매우 심각하여 통일 국가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고, 매우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로 안보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이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매우 강한 입장에서 앞으로 남한이 원하는 북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국 사회 내에서 합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도 관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장래에 어떤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민족주의를 매개로 서로 화해하고 평화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 일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주의와 다릅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의 기반을 형성해야 합니다.

5. 대북 정책

김용호: 앞으로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식: 이제 남북한이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남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흡수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장차 북한이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91년에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을 때 양자간의 화해·불가침은 물론, 교류 협력에 관해 거의 전분야에 걸쳐 매우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자가 모두 엄청난 군대를 유지하면서 서로 형제처럼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남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흡수 통일에 집착하지 않고, 북한이 장차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은 호전적인 북한만을 상대로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제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장차 북한이 어떠한 정치·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구소련처럼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도 잘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북한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해 지금까지 당과 국가와 사회를 결속시켜 주었던 기본 축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점진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용호: 그런데 김정일은 여전히 좌파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한국과 서방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을 지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정식: “이미 북한은 군량미도 모자라서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량미도 없는 군대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냥 놓아두면 무너질 것인데 왜 도와주려고 하는냐” 이러한 논리를 따르게 되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북한을 도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조여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빨리 와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두 가지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북한의 군대가 미사일을 포함한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과 서방이 북한을 도와야 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① 북한의 군대가 미사일을 포함한 막강한 파괴력이 있고, 서울이 휴전선에서 100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최악의 경우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사태(전쟁)를 막아야 된다는 것과, ②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지금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장차 남북 평화 통일을 말할 때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반도는 아주 적은 나라이고, 특히 서울은 휴전선에서 100리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최악의 처지에 놓여졌을 경우, 북한의 장성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럴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폭을 하거나 자살을 할지 모르지만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장엽씨도 얘기했지만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한데,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닌 자폭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고성능의 무기를 가진 군대가 자폭적인 전쟁을 하게 될 경우 누가 희생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북한 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장성들이 자포자기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현재 북한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이 안정을 되찾고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모든 거래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악의 상태를 방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은 지금 대립적인 입장에 놓여 있지만 동족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는 그들과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영양분을 과중하게 섭취해서 비대해져 고민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죽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리고 식량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에 쌀을 보낼 경우 군량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군량미가 떨어질 경우 자폭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량미를 보급하는 것이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경우, 장차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대북 합작 투자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지원하고, 남북한간의 교역을 확대하며, 대북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여론에 끌려 다니면서 일관성없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노력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용호: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정식: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대북 합작 투자 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지원하고, 남북한간의 교역을 확대하며, 대북 식량 지원과 함께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대우그룹의 남북한 합작 사업을 재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국제 기구를 통해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종래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여론을 무시할 수 있었던 독재 정권에 비해 여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 정권이 대북 정책을 수행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적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여론에 끌려 다니면서 일관성없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지 않고 여론을 이끌어나가는 노력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에서 다루어서는 안되고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자들이 통일 정책·대북 정책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붕괴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대북 정책에 비해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㉞